

인공지능(AI) 시대 문학연구의 기회와 도전

安德明(中國社會科學院文學研究所副所長, 研究員)

세계의 다양한 민족 전통신화에는 비교적 흔하게 등장하는 모티브가 있는데, 그것들은 주로 '하늘에 오르는 사닥다리(天梯)', '하늘을 받치는 기둥(天柱)', '하늘로 통하는 탑(通天塔)' 등을 거론하면서 천국과 인간 세계를 매개하는 이성적인 통로를 설정한다. 이러한 통로는 그저 주어지거나 한층 보완되어야 하는 것으로 구현되어 있지만, 모두 인간으로 하여금 하늘에 이르게 하는 기능을 지닌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서사 모티브는 대부분 신의 경계로 인해 통로가 파괴되는 결말로 마무리된다.¹ 이 점을 가장 잘 드러난 신화는 유대교의 「창세기(Genesis)」에 등장한 바벨탑(Babel Tower)의 신화이다. 이에 따르면 인간은 천국에 닿는 탑을 세워 신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한다. 이를 알아챈 신은 지상에 강림하여 인간의 언어를 다르게 만듦으로써 서로 소통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래서 인간은 최종적으로 탑을 세우려는 계획을 버리게 되었다. 통상적인 분석에 따르면 이 신화는 종교적인 텍스트로서 한편으로는 인간의 오만함을 비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에 대한 신의 지배력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현재 상황에 입각해서 보면, 우리는 또한 이 유형의 신화 속에서 인간 미래의 운명에 관한 예언이나 경계를 읽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¹ 『神化母題索引』.

인공지능의 굴기와 발전은 다양한 분야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데, 문학 연구의 영역도 그 예외가 아니다. 특정 주제어의 입력만을 통해 텍스트를 생성하는 데에서 문헌을 자동적으로 분석하는 기능까지 갖춘 인공지능의 기술은 여러 면에서 문학의 전통적인 연구방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실태는 새로운 기회와 더불어 심각한 도전을 초래하고 있다.

1. 인공지능 기술의 광범위한 적용은 문학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인공지능의 지속적인 발전과 보완은 문학영역에 더욱 효율적이고 전면적인 연구방법을 제공하는 동시에,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경로와 문제에 대한 고찰을 부추겼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발전 초기의 성과 중 하나가 바로 빅데이터에 입각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공유 체계의 구축인데, 이는 연구자가 손쉽게 풍부한 소재와 연구자료를 획득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화된 자료 모음 사이트나 도서관은 인공지능의 기술을 기반으로 자료를 분류하고, 그것을 문학작품의 색인과 검색과정에 도입하였다. 그래서 연구자는 필요에 따라 간단한 주제어나 저자 정도를 입력함으로써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데이터 처리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기술은 전통적인 수단으로 섭렵할 수 없는 문헌을 간단하게 입수하게 하고, 그 문헌들 사이의 연관성까지 명확하게 제시하는 기능까지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전제에서 최근 학계에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제기되었다. 전통적인 이론과 방법을 기초로 삼되, 디지털 데이터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학술 논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어

떻게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한 다양한 자료를 통해 특정 유형의 문학 텍스트에 관한 전면적인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전통적인 수단으로 완수하기 힘든 과제를 수행할 것인가? 기술에 의해 발견된 새로운 문제는 문학 자체의 속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어떠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가? 새로운 기술 수단이 전통적인 이론과 수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후자를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모두 디지털화가 성숙한 단계에 이른 배경에서 문학연구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문제와 직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정밀하고 폭넓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가운데, 문학 텍스트에 함축된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고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연구자는 빅데이터 기술이 제공한 대량 정보와 간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같은 유형의 텍스트에서 빈번하게 등장한 어휘를 추출하여, 그것이 일반적으로 어떤 문맥에서 나타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어휘가 텍스트의 서사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특정 민족이나 지역의 사람에게 어떻게 사용되고 이해되는지를 가늠할 수도 있다.² 이러한 분석과 사고방식은 디지털화된 기술 수단을 충분히 활용한 것으로, 해당 연구 분야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이런 유형의 연구방식은 동시에 다른 차원의 문제를 촉발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이 인문학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그것이다. 많은 연구자에 의해 지적되었듯이, 예술적인 천재성과 깊이 있는 사유를 통해 성취된 인문학 영역의 기존 연구성과는 빅데이터 시

² 『小紅帽2.0版-數字人文學的新發展』.

대에 이르러 정밀한 프로그램과 같은 미리 설정된 수단으로 손쉽게 완수될 수 있고, 이 상황에서 아마추어마저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뿐더러 때로 전문가보다 심도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게 되었다.³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인간에 의해서 구현된 예술, 사상, 인문학적 정신 활동 등은 모두 충격을 받아 파편화되고, 더 나아가 미리 설정된 기술 프로그램의 통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간단한 노동으로 전락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점이 바로 전통적인 학문에 새로운 변혁을 가져온 디지털화된 수단이 우리에게 남겨준 심각한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걱정은 불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기술 적용에는 여전히 연구자의 개입, 해석, 판단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연구자에게 미리 축적된 건실한 기초가 없으면 의미 있는 문제의식과 적합한 논의방향을 도출할 수가 없고, 더 나아가 기술을 활용하여 연구결과의 정확성과 깊이를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연구자의 적절한 조율과 응용 없이, 눈앞에 놓인 대량의 데이터는 그저 데이터의 뭉치일 뿐이다. 이 맥락에서 연구자가 데이터를 어떻게 조율하고 어떻게 응용하는지는 다름 아닌 자신의 역량에 달린 일이고, 서로 다른 역량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가운데, 인문학 영역에서 제기되는 위와 같은 걱정은 병이 없는데도 신음소리를 내는 불필요한 걱정만이 아닐 것이다.

³ 『小紅帽2.0版-數字人文學的新發展』.

2. 형식적인 완벽함과 아우라(aura)의 결여: 인공지능 창조의 내재적 특징

최근에 이르러, 많은 연구자는 각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에 힘입은 혁명적인 성과를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더욱 넓은 차원의 연구 단계에 매진하려고 한다. 인공지능의 영역에서 성취된 새로운 업적과 발명, 예를 들어 알파고가 세계 정상급 바둑기사를 이긴 일화는 문학 관련 연구자의 관심을 어느 정도 끌었으나, 여전히 충분한 중시를 불러일으키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시를 지을 수 있는 챗팅 로봇 샤오빙(小冰)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가운데, 로봇이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능력이 점차 성숙한 단계에 접근하게 되었는데, 특히 챗지피티(ChatGPT)가 출세한 뒤, 문학계에 걸친 걱정은 순식간에 가속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SF 소설에 나올 법한 충돌이 부지불식간에 문학 연구자의 난제로 부상하였다. 즉 로봇은 인간을 이길 수 있는가, 더욱 구체적으로 말해 로봇은 작가, 시인, 문학 교수의 일자리를 앗을 수 있는가와 같은 문제가 본격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문학창작의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선보인 힘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인공지능은 일반적인 작문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풍격의 텍스트를 모방하여 시가와 이야기를 창작해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창작된 작품은 형식과 내용의 면에서 모두 전문가와 맞먹거나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 동시에 많은 작가와 전문가들은 이미 챗지피티를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텍스트를 생성함으로써, 창작을 보조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주로 공문 유형의 텍스트 작성). 예를 들어 중국의 저명한 작가 무어언(莫言)과 리유츠시인(劉慈欣)은 모두 챗지피티를 사용하

여 강연 원고나 시상식 원고를 작성한 바가 있는데, 그들의 평가에 따르면
챗지피티의 원고 작성 질이 비교적 좋은 편에 속한다.

6년 전, 어떤 사람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낸 바가 있
다: 두 고시가 있는데, 제목이 모두 「가을 저녁의 호수 위(秋夕湖上)」이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송대 시인 갈소체(葛紹體)의 작품이고, 다른 하나는 로
봇의 작품이다. 독자들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가?

1) 한밤의 가을은 쌀쌀하고, [잠시 내린] 비는 옷을 적셨네,

서쪽 창가에 홀로 앉아 저녁의 노을빛을 맞보고 있네.

출렁이는 호수의 물결에서 뭇 산의 모습이 [보이고],

이리저리 노니는 산새 무리에서 자연스러운 울음소리(籟)가 어렴풋이(微)
[들리네].⁴

2) 억새꽃이 [휘날리는] 바람에 계수나무 꽃이 뚱뚱 떠 있고,

한이 있는 대나무는 구름 높이 자라 푸르싱싱한 기운을 흘러넘치려고
하네.

누가 반쪽 호수면에 [끼인 것들] 펼쳐내 새로운 거울처럼 만들고,

날아오는 안개비를 [빌려] 하늘이 내린 근심(天愁)을 씻어낼 수 있는가.⁵

⁴ “一夜秋涼雨濕衣，西窗獨坐對夕暉。湖波蕩漾千山色，山鳥徘徊萬籟微。”

⁵ “荻花風里桂花浮，恨竹生雲翠欲流。誰拂半湖新鏡面，飛來煙雨暮天愁。”

일설에 의하면 많은 사람이 정답을 맞히지 못하였고, 필자도 그 예외가 아니었다.

인공지능의 텍스트 생성 모델과 능력을 맛보기 위해 필자는 챗지피티와 대화한 적이 있다. 먼저 챗지피티에 우정을 주제로 칠언절구(七言絶句)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1분이 안 되는 사이에 다음과 같은 시가 창작되었다.

자신의 속마음을 아는 참된 벗(知己)은 마치 희귀한 보물 같아,
[그와의] 정분은 금전보다 값지네.
다시 만남이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우정은 화초밭에 있는 화초와 같이 [자연스럽게 자라네].⁶

다음으로 또한 남녀 사이의 사랑에 관한 고사(古詞)를 짓도록 하였다.

검은 머리카락이 눈처럼 하얗게 되고,
어렴풋이 [내리는] 안개비는 성긴 울타리를 덮어씌우고 있네(籠).
꿈속에 [추억의] 길거리로 되돌아가니,
그대와의 지난 일이 안개가 서린 물결처럼 [희미하게 떠오르기 시작하네].
그대로 향한 그리워함이 풀리지 않으니,
정이가 깊고 질어 내버려 두기가 어렵네.
오늘 밤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니,

⁶ “知己如稀珍，情誼勝金錢。相逢如初見，友情似花田。”

애꿎지만 꽃다운 꿈을 [빌려] 그대에게 [이 마음을] 기탁할 수밖에 없네.⁷

마지막으로 이별의 애석함을 표현하는 고사를 창작하도록 하였다.

이별의 슬픔과 한이 꽃과 같다면,

그 정이 깊고 깊은 곳에는 더욱 초췌한 모습일세.

꽃이 피고 지는 사이에 이별을 슬퍼하니,

사랑하는 그대는 얼마나 눈물 가득 [머금고 있을까].

바람을 맞아 눈물 방울이 흘러내려 마치 부드러운 정이 끊어지는 것 같고,

서로 그리워하는 슬픔의 마음은 마치 실처럼 매이고 있네.

이별 후의 마음을 스스로 버리고 어렵고,

한이 서로 뒤엉켜 애꿎는 꽃이 되네.

이러한 결과물들은 칠언시(七言詩)를 오언시(五言詩)로 오인하는 등 작은 오류 이외에 작품 자체로서는 이미 형식과 내용을 제대로 갖춘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내용적인 면에서, 이 시들은 추상적이고 난해한 주제에 정확히 합치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챗지피티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지어낸 시가 경전에 나올법한 시와 거의 같거나 그것을 넘어선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는 인공지능은 끊임없이 학습을 거듭할

⁷ “青絲成雪，依稀煙雨籠疏籬。夢回巷陌，紅顏舊事如煙波。相思無解，情深意濃情難舍。今宵不再，斷腸芳夢空相托。”

수 있으므로, 향후 예술적 수준에 걸맞은 시와 소설을 창작할 수 있는 것도 쉽게 예견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최종적으로 문학창작의 주체, 즉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까? 만약 인공지능에 의해 창작된 작품도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면, 문학의 경계는 도대체 어디까지 잡아야 하는가? 문학창작에 있어서 인간의 주체성을 어떻게 규정하여야 하는가? 이는 모두 인공지능이 발전한 배경에서 문학 영역의 연구자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새로운 문제들이다. 다시 말해, 기술의 도약에 힘입어 인공지능이 자유자재로 문학창작을 할 수 있다면, 문학 연구자의 소명이 결국 그것에 의해 대체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앞의 시들을 자세히 음미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또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것들은 풍격, 구조, 어휘선택 등 면에서 모두 고시와 유사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독특한 경험과 풍부한 정감에서 비롯된 인간 작품의 의경(意境)을 완전히 구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시들은 창조적 상상력과 독창성이 부족하므로, 독자와의 공감효과를 형성하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창작된 작품은 인간 창작자가 지닌 개성화된 정감, 시각, 독창성 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탁월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지만, 질이 높은 창작보다는 인간 작품에 대한 고급적 모방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이 여기에서 짚어보아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곧 독자·수용자가 문학작품에 감동되는 것은 그 내용 자체가 지닌 매력뿐만 아니라, 문학작품을 인간의 창작물로 간주하고 자신과 작품 사이에 특정 정감적 이입 유대를 자연스럽게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감은 공업적 대량생산

의 수단에 의해서 제작된 제품에 대해서도, 어떤 것에 대한 특수한 선호가 있는 정감과 유사하다. 즉 인간은 그러한 제품에서 특유의 감수 또는 아우라를 체험할 수 있는데, 이는 기계 자체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벤야민(Walter Benjamin)에 따르면 이러한 종류의 아우라는 예술작품이 지닌 독특한 분위기, 독창성,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고, 인간의 마음과 작품의 현시적 결합에 기반하여 드러나는 독특한 가치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기술 복제의 시대에서 촬영과 인쇄의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작품의 독창성을 훼손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완전히 모방하여 재현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창작한 문학작품에 아우라가 있는 한, 인공지능에 의해서 완전히 재현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아우라에 수렴된 것은 깊은 차원의 정감, 역사와 문화, 창작 주체의 영민한 천재성이니만큼, 그것들은 미리 설정된 계산 프로세스에 쉽게 포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공지능이 창작한 작품은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인간의 작품과 유사한 수준에 이를 수 있지만, 깊은 차원의 정감적 감화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강한 심리적 공감을 일으키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3. 인공지능 시대에 문학발전의 새로운 방향: 대문학관(大文學觀)의 시각

위에서 이루어진 분석은 인공지능의 기술이 아직 발전 중에 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도출된 낙관적인 판단이다. 다시 말해, 기술의 지속적인 진보에 따라 인공지능에게도 인간과 같은 자아의식이 부여되고, 욕망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상황은 질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이러한

가능성은 논리적으로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⁸ 이렇게 되면 인간지능의 창작은 정감적인 표현, 의경의 구현, 체험적인 소통 등 면에서 모두 인간과 같거나 넘어선 차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문학 활동에서의 인간 주체성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문학 활동 속에서의 인간 주체성은 주로 문학의 실천(창작과 감상) 과정에서 인간이 지닌 지배적 위상,⁹ 특히 능동성, 의지와 능력에 따른 창의성을 강조한다. 문학의 창작과정에서 말하자면, 이러한 주체성은 곧 작품의 창작과정에서 현시되는 작가의 독특한 사상, 정감, 문화 배경과 개인적인 경험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인공지능이 작품 생성의 측면에서 드러낸 경이로운 역량과 그것의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인간은 앞날에 대한 우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즉 문학창작의 과정에서 선보인 인간의 독특한 정감, 창의성, 심오한 사고는 끝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되는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현실에 직면하였을 때, 우리는 단지 인공지능에게 진실한 감정과 개성화된 창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문학 연구자는 자신의 관념과 시각을 조정하고, 적극적으로 '대문학관'에 입각하여 연구대상을 관찰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문학관이란 문화의 전체적인 안목으로 문학 현상을 인식하고, 그 발전의 이치를 종합하여 문학의 기본속성을 고찰함으로써, 문학연구와 관련된 학과를 추동하는 관점과 방법을 가리킨다. 그것은 대상에 대한 문학의 포용

⁸ 馬立新, 楊冬妮, 「能作詩的ChatGpt能否稱得上藝術創作主體」, 『內蒙古社會科學』, 2023年第4期, pp. 43-51.

⁹ 「文學創作的主體, 主體性及其他」.

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이론과 연구방법을 수용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래서 대문학관은 인간의 언어와 문자를 통해 구현된 예술성 있는 모든 표현방식을 평등하게 문학의 내용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또한 다른 차원, 특히 상호주관적인 각도에서 문학 활동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문학은 일종의 표현형식인 동시에 인간의 소통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인간이 자연과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문학관의 시각에서 보면, 완결성 있는 문학 실천은 창작과 수용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구현된다. 그렇다면 인간의 주체적인 위상, 특히 창작의 측면에서의 주체성이 인공지능의 도전을 받았다면, 수용의 측면에서는 어떠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할 수 있다. 만약 어느 날 인공지능이 완벽한 '작가'와 '시인'이 되고, 인간은 다만 그것들이 창작한 소설과 시가의 단순한 소비자로 전락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기본적인 논리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소비자 개인이나 단체의 성향에 따라 서로 다른 주제, 풍격, 내용을 지닌 문학작품을 창작할 것이다.

다시 말해, 창작의 주체성이 기계가 장악하더라도 어떤 작품을 창작하고, 그 작품이 인정받을 수 있는가와 같은 주도권은 인간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비록 어느 정도의 어쩔 수 없음이 있지만, 인공지능에게 문학창작을 하게끔 하는 것도 인간의 선택결과에 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문학 실천에서의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즉 문학 활동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주

체성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은 인간 의지를 반영한 하나의 유능한 도구일 뿐이다. 비록 그것은 어느 정도의 능동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인간 의지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백번 양보해서 인공지능의 작품이 인간의 작품을 한참 넘어 완벽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문학을 매개로 자아를 표현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무시무시한 위력의 무기를 갖추고 있더라도 무술을 버릴 수 없고, 기중기를 갖추고 있더라도 역도 경기를 계속 개최하는 것과 같다. 알파고가 초일류 기사를 이길 수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친구와의 바둑 대국을 계속 즐길 수 있고, 인공지능이 아무리 완벽한 음성을 합성해낼 수 있더라도, 우리는 그렇지 못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스스로의 정감을 표현할 수 있다.....이는 결국 문학의 창작능력에서 인간이 인공지능의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노래로써 하고 싶은 말을 읊조리고(歌以咏言), 춤으로써 뜻을 다하며(舞以盡意), 시로써 지향을 밝히고(詩以明志), 문장으로써 도를 실을(文以載道)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 뜻, 지향, 도는 모두 인간 내면의 정신적 추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간 자신이 지닌 창조력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식하고 어리둥절한 아큐(阿Q)마저도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나는 쇠막대기를 지고 너를 때리리라!”라는 희곡의 가사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게 된다.

그러나 여심의 여지가 없이, 인공지능에 의해 창작된 작품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문학 유형을 산출하다. 그것은 전문화, 대량화, 체계화된 산업생산 모델을 갖추고 있으므로,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신속하게 독자의 수

요 특징을 확정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창작방식과 작품은 문학 영역의 큰 변화를 일으키기 마련이다. 오늘날 수많은 작가가 챗지피티를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여 작품을 창작하려고 하는데, 이는 인공지능의 도입이 이미 작가의 창작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기존에 개성화된 정감과 독립적인 사고에 의해서 창작된 문학작품의 규정은 점차 인간과 인공지능이 서로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창출된 것으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필연적으로 독창성, 저작권 등의 귀속문제에 관한 재사고를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전통적인 작가의 의미에 대한 재설정을 요청할 것이다.

외부의 힘과 협력하여 창작을 수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민간문학의 창작모델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민중들이 집단적으로 창작하고 전승하며 향유하는 문학의 형태로서, 민간문학은 아주 오래된 문학 형식 중 하나이다. 그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개체적인 창작과 집단적인 창작을 결합한다는 점인데, 이는 창작과정 속에서 창작자와 수용자, 공연자와 관중의 상호 보조적 관계를 중시하고, 둘 사이의 불가분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예를 들어 특정 민간우화의 창작, 전파, 표현의 과정에는 두 측면의 요소가 있다. 하나는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창작자와 전파자가 있고, 이들은 비교적 적극적인 형태로 창작과 전파에 힘을 기울인다. 다른 하나는 일반 수용자인데, 그들은 표정, 지체 언어, 호응 등 수동적인 방식으로 작품 내용의 창작과 그 전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문학 형식은 작가문학이 처음 탄생할 수 있는 자양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화되고 개체화되는 독립적 창작방식이 증가함에 따라, 문학작품에서 창작자와 독자 사이의 간격은 점차 멀어지고, 개성화된 독립창작이라는 작

가문학이 생겨났다. 그래서 독립창작이라는 특징이 작가문학과 민간문학을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작가와 시인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창조성에 호소하는 기준으로 정착하였다. 그러한 까닭에, 모든 작가와 시인은 작품의 독창성을 강조하게 되고, 타인의 생각을 빌려다 쓰는 행위를 영예로 간주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시대의 인간 창작자는 인공지능 기술과 그것에 따른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활용행위를 지극히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 원인은 아무래도 인간이 아직 인공지능을 수단으로 이해하는 전제에서 그것과의 관계 맺음을 시도하는 데에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시 말해, 인간에게 있어서 기술이라는 것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것은 결국 연필, 종이, 컴퓨터와 같은 도구에 불과하며, 나아가 그 작용은 오직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스스로를 '선택적인 장인'으로 취급한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말하면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대량의 정보와 계산능력은 이미 인간의 역량을 훨씬 넘어섰으므로, 그것을 빌려 창작에 임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많은 유능한 작가와 함께 협력창작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많은 작가들은 이 유형의 창작방식을 활용하게 되고, 개체창작과 집단창작 사이의 경계는 다시 모호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서 서술한 민간문학의 창작방식은 새로운 기술의 지탱에 힘입어, 다시 지배적 위상을 지닌 문학창작의 형태로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사고방식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즉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작방식은 한편으로는 창작활동 속에서 인간의 독

점적인 발언권에 대한 인공지능의 지양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예활동 속에서 창의적인 영역에 대한 인간의 유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형세에서 보면, 연구자는 반드시 자신의 시각과 관념을 조정하여, 대문학의 견지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문학 현상을 이해하고 사고할 필요가 있다. 대문학의 관점에서 우리는 문학에 대한 기존의 기계적인 정의에서 풀려나, 보다 관용적인 태도로 새로운 문학 현상에 접근하고, 그러한 현상에 대해 더욱 전면적이고 타당한 인식을 갖출 수 있다. 특히 대문학관이 제시한 적극성, 관용성, 공정성의 태도로 인공지능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인간이 다양한 문화 양상에 입각하여 무한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그것은 인간 독자의 심미적인 의식과 소비적인 취향을 주도하여, 문학 실천의 과정속에서 주체적인 위상을 완전히 획득하고, 심지어 인공지능의 입맛에 맞는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쪽으로 나아갈지도 모른다. 지금 시대 무소불능에 근접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상태를 감안하면, 이 또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시 본문의 시작 부분에서 거론된 신화의 예언적 의미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주어진 신화의 문맥 속에 돌아가 보면, 그것에는 항상 하나의 전제가 함축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 즉 신은 항상 자신의 모습을 기준으로 인간을 창조하고, 그러한 인간이 자아의식을 갖게 되어 최종적으로 신과 맞먹는 위상을 지닐 정도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하늘에 닿는 사다리나 천국에 이르는 탑을 세우는 일은 모두 이 상태의 구체적인 현시이다. 바로 이 점이 신의 경각심을 촉발하여 인간의 지닌 능력은 다시 제한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늘에 닿는 사다리나 탑은 무너질 운명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은 고전적인 신화와 오늘날 유행하는 SF소설을 비교하면, 그동안 주목하지 못한 함축을 발견할 수도 있다. 즉 만약 신화 속에 등장한 창조주를 인공지능 기술과 그것에 따른 창조물을 발명하고 통제하는 현대 인간으로 보고, 신화 속의 인간을 인공지능에 의해서 산출된 데이터의 체계로 보면, 오래된 신화는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 살아 있는 예언으로 재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예언은 우리에게 기술윤리와 연관된 문제를 예방하고, 그것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문학 연구자로서의 새로운 소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